

신호유화, 순이익 26억원 적자

매출액은 1289억원으로 24.5% 증가 ... 마크로젠도 적자지속

6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2004회계연도(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) 경영실적이 유가증권시장은 호조를 보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,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월 결산법인(제조업 9사 및 금융업 5사)의 2004회계연도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, 매출액은 2조5924억원으로 전년대비 8.30%, 순이익은 1480억원으로 42.8% 증가했다.

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조8866억원의 매출과 6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각각 3.5%, 78.3%의 증가했다. 또 금융업(상호저축은행)은 매출이 7058억원으로 23.5%, 순이익은 832억원으로 23.7% 늘어났다.

상장기업별로는 남한제지, 신성통상, 체시스 3사가 흑자로 전환한 반면, 남영L&F는 적자로 돌아섰다. 화학기업 중 유일하게 6월 결산하는 신호유화는 적자가 지속됐다.

코스닥시장 상장법인(비금융 9사 및 금융 3사)는 전체 매출액이 7846억원으로 5.1% 늘었지만 금융업이 358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적자로 전환됐다.

비금융업은 매출액이 4992억원으로 5.5% 늘어난 반면, 순이익은 164억원으로 10.9% 감소했다.

마크로젠, 한진PNC는 적자가 지속됐다.

신호유화는 매출액이 1289억600만원으로 24.5%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5억2400만원으로 62.5% 급증했으나, 당기순이익은 26억3400만원 적자로 적자가 지속됐으며, 부채비율은 55.39%를 나타냈다.

마크로젠도 매출액이 108억3800만원으로 21.4%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6억6900만원, 순이익 역시 9억6900만원 적자로 적자가 지속됐으며 부채비율은 6.37%로 1.99%p 상승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06>